

여수시, '암모니아 혼소발전 실증' 협력 업무협약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녹색에너지연구원

2050 탄소중립 실현 무탄소 전원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여수시는 14일 시장실에서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여수 순환유동층 발전소 암모니아 혼소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남동발전 여수본부 보일러를 대상으로 정부 국책과제로 추진 중인 '발전용 순환유동층 보일러 암모니아 20% 혼소기술 최적화 및 실증' 과제 추진에 협약기관이 상호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암모니아 혼소발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와 다른 연료를 혼합해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기술이다.

정부는 올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및 발전비중 기본계획'을 발표해 수소-암모니아를 발전연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암모니아 혼소 실증 과제는 한국남동발전이 보유하고 있는 여수 1, 2호기 및 한국남부발전의 삼척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190억 원이 투입돼 석탄화력 발전소 암모니아 20% 혼소발전 실증사업이 추진되며, 지자체와 연구기관, 산업계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파일럿 테스트 및 인프라 구축, 실증 후 상업운전까지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비전을 가지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무탄소 전원 기술개발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할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14일 시장실에서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여수 순환유동층 발전소 암모니아 혼소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 新관광트렌드 '새로운 시대의 여행' 선도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을 관광슬로건으로 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광양관광이 新관광트렌드를 선도하며 주목받고 있다.

광양시가 최근 여행하기 좋은 도시, 대한민국 밤방곡곡 100 등에 잇달아 선정되는 기쁨을 토하며 급변하는 엔데믹시대 '새로운 시대의 여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대의 여행'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2023-2025 관광트렌드 'New Era Trip'을 머리글자로 제시한 10개의 키워드로 광양관광의 핵심가치와도 부합한다.

「여행하기 좋은 도시」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광양시가 포스트코로나, 디지털대전환, ESG 등 변화와 책임이 요구되는 시대에 풍부한 관광자원과 지속가능한 관광수용태세로 경쟁력 있는 관광브랜드를 구축했다는 인정이어서 의미가 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된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명소, 대한민국 밤방곡곡 100'에 포함된 '구룡산전망대&광양만야경'도 휴가지에서 일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생활인구 등을 이끄는 체류형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높인다.

고흥군, 드론 실증도시 성공 마무리 위해 머리 맞대

1년간 실증 성과 기반으로 물품 배송 서비스 등 조기 상용화 목표

고흥군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해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드론 활용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전남테크노파크, 대한항공, 피앤유드론, 천풍, 날다, 마린로보틱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3월 처음으로 드론 실증도시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사업을 통해 군과 참여기업은 드론을 이용한 유·무인도 사회안전망 강화와 유해조수 퇴치, 긴급 물품 배송 실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동안 열린 워크숍에는 컨소시엄 참여 기관 총괄 책임자들이 참석해 8개월 동안 쌓아 올린 성과를 공유하고, 최종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또한, 올해 추진한 사업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타 지자체보다 앞서 장거리 긴급 물품 배송 등 각종 드론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방안과 실증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군은 드론 등 첨단항공 산업을 지역의 근간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며,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최종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고흥이 드론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녹동항 드론쇼와 고흥드론·UAM 박람회를 개최해 드론·UAM 중심도시 고흥을 전국에 알리고, 고흥형 도심항공교통 관광 항로 개설사업, 미래 비행체 비행안전성능 모니터링 기반 구축, UAM 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등을 추진해 미래 첨단 항공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성군, 16~17일 보성문화원

남도무형유산 전시·공연 열려

보성군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보성문화원에서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2023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남도무형유산 초청 전시·공연'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2023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은 보성군의 무형유산의 가치를 탐구하고 이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성문화원에서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무형의 품격 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남도무형유산 보유자를 대거 초청했다. '남도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이틀간 열리는 전시회에는 참빗장 고흥주, 나주반장 김춘식, 옥기장 이학수, 낙죽장 이형진, 염색장 정관채 보유자의 작품 등 총 1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남도의 멋과 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공연은 16일 김은숙 가야금병창, 강대승 남도잡가, 이희춘 진도북놀이, 황재중 마동매구, 17일 박춘맹 판소리, 선영숙 가야금산조, 박방금 판소리, 김병천 진도북놀이, 김동인 우도농악 등 품격 있는 무대로 전통예술의 진면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16일 오후 2시에는 'K-Culture'로서 지역무형유산의 가치'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기조 강연은 함한희 전북대 명예교수, 주제 발표에는 홍태환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 종합토론에는 정희천 전북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정식 목포대 교수, 박종오 남도민속학회장 등이 참여한다.

보성=김명순기자



순천시, 2023년 국내 여름휴가 만족도 '전남 1위'

전국 3위, 지난해 대비 24위 상승

순천시는 '2023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조사'에서 전남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행 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드는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6-8월)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7,281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지에 대한 만족도와 휴가지로의 추천 의사 여부에 대해 '2023년 국내 여름휴가 만족도'를 조사했다.

5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순천시는 지난해 대비 24위 상승한 전국 3위에 올랐다.

순천시는 누구나 누리는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캠핑,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 대응 인프라를 확충해 온 가운데, 10년 만에 다시 개최된 2023순천만국제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이 만족도를 상승시킨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관광인프라를 재정비하여 여행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새로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 사용금지 품목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빨대·젓는 막대
- 1회용 우산 비닐
-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